

종합·해설

# 손학규, 인재영입 총력전 편다

## 총선·대선 겨냥 전략·기획통 전면 배치 전략홍보직 신설 본부장에 박선숙 의원

### 신경민 논설위원·박경철 원장 등 영입 모색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선거 경험이 풍부한 전략·기획통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한편 대대적 인재 영입에 나섰다.

손 대표는 25일 사무총장 산하에 전략홍보본부장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박선숙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전략홍보본부장 산하에 있는 전략기획위원회에 김현태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D) 소장, 유비쿼터스 위원장에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여수 출신 재선인 주승용 의원, 당 심크랭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에는 정성호 전 의원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철희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박선숙 홍보전략본부장과 이번에 외부에서 영입된 김현태 전략·기획위원장, 문용식 유비쿼터스 위원장은 선거관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 의원은 특정계파로 분류되진 않지만 2008년 전략기획위원장, 총선기획단 부단장을 맡아 당시 당 대표였던 손 대표와 호흡을 맞췄으며 손 대표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 전 소장은 4·27 분당을 재보선을 계기로 '손학규 사단'에 본격 합류했다. 전두환 신

군부 시절 두 차례 옥고를 치렀던 문 대표는 '아프리카 TV'를 운영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왔고 지난 4·27 재보선 때는 직원들에게 투표 후 출근하라며 2시간 유급휴가를 주기도 했던 인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계보의 운동권 출신 IT 전문가로, 외곽조직인 한반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번 당직 인선을 놓고 손 대표가 계파 구분없이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온 인사들을 '손학규의 사람'으로 편입시켜 친정체제를 강화, '손학규의 색깔'을 본격 드러내면서 혁신과 통합의 추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4·27 재보선 승리 후 급반등했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지지율 부진 국면을 돌파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또 또 중간인재영입을 구성, 당의 문호를 더욱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인재영입위를 정식으로 꾸려 더 넓게 당을 개방할 것"이라며 "이 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끌어 모을 것이며, 그 역동성을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중적 신뢰가 높은 각계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당에서 거론되는 영입 1순위는 당내 특정 계파의 반발로 지난해 6·2재보선 출마가 백지화된 신경민 MBC논설위원. 신 의원은 오는 7월 MBC를 정년 퇴직할 예정이어서, 퇴직과 동시에 적극적 영입작업을 편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신위원을 맡았던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등 대중적 신뢰도가 높거나 이번 정권 때 탄압을 받은 언론계, 예술계, 대중연예계 등의 인사들도 삼고초려의 자세로 적극 접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신위원을 맡았던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등 대중적 신뢰도가 높거나 이번 정권 때 탄압을 받은 언론계, 예술계, 대중연예계 등의 인사들도 삼고초려의 자세로 적극 접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신위원을 맡았던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등 대중적 신뢰도가 높거나 이번 정권 때 탄압을 받은 언론계, 예술계, 대중연예계 등의 인사들도 삼고초려의 자세로 적극 접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LH 무효" 청와대연좌농성** 김관주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각 지자체 시장·군수 등이 25일 서울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청와대 입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이전 결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학등록금 인하 논쟁 난타전

### 황우여 "재정투자 늘려야" 천정배 "부자감세 철회를"

대학 등록금 인하 논쟁이 여야를 넘나들며 백가쟁명식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문제는 재정 확보"라며 "무엇보다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 교육재정은 41조원인 반면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

다"며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외국 수준인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 호실에서 회동,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논

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는 회동 직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 합의의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값등록금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무상등록금까지도 가능하다"면서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공약을 뒤집은 것을 사과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낮 국회문화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관철을 위한 1인 시위에 합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권연대로 내년 총선 지역구 돌파"

### 민노당, 광주서 대규모 정치대회

민주노동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중 가장 먼저 대규모 정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은 25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당원 및 진보진영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지역 '10만 지지자 운동본부(본부장 윤민호)'도 출범식을 갖는다.

'순전에서 광주로!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지역구 돌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민노당의 첫 공식 정치행사다.

이번 정치 대회는 4·27 순천 사례 발표, 10만 지지자 운동본부 출범, 문화공연과 영상공연, 민노당 중앙 유세단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출범하게 될 '10만 지지자 운동본부'는 민노당을 지지하는 각계각층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지층을 결집할 구상체로, 내

년 총선에서 강력한 대중적 지지기반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올해 순전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진보벨트를 구축해 지역정치를 판 같이 하고 정권교체의 다짐을 놓겠다"며 "이번 정치대회는 광주지역 진보세력이 하나로 결집하여 4·27 재선거의 경험과 광주지역 돌파를 대중적으로 선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정치대회에는 광진속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민노당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지역구에 오병운 전 민노당 중앙당 사무총장이, 남구에서는 광진속 국회의원이, 북구에서는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중이며, 전남지역에서도 순천 김선동 현 의원과 서부지역 1명 등 총 5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손, 지지율 왜 안 오르지?

### 재보선 직후 14%대 급등했다 내리 하향곡선 "과감한 정치적 결단·실행 시기 놓쳤다" 분석도

4·27 재보선 직후 급등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3주째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조사 결과, 5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손 대표의 지지율은 11%대를 기록하고 있다. 재보결 선거 직후 8%대에서 14%대로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손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면서 두 자릿수로 급등한 바 있으나 얼마까지 못하고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바 있다.

이처럼 손 대표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의 '누군한 성향'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치적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타고 나가지 보다는 시간을 두고 삼사숙고를 거듭하면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전당대회와 이번 재보선 선거 승리 이후,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뒤 따르지 못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손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변화와 개혁'도 국민들이 실실적으로 체감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유럽연합(EU)자유 무역협정(FTA)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손 대표의 정치적 노선도 중도와 진보를 오가면서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 부재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국민적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타 대선주자와의 차별화 등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대표를 상징할 수 있는 선명한 국가 운영의 그림이 국민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장인 조의금 빌려 회원권 샀나"

### "3회 위장전입 대법관 자질 있나"

### 박재완·박병대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가족간 돈거래 의혹, 이들의 스포츠카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개혁 관련 여부 등에 대한 견해도 들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 내정자가 손위 동생 부부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2억7800만 원을 빌렸고, 장인 조의금을 빌려 3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처형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 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했다며 '수상한 돈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아들이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파'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감독과 정책을 합친 현재의 금융위 조직은 작은 정부의 가치 아래 정부부처 숫자 줄이기에만 몰두한 박 후보자를 비롯한 행정학자들의 작품"이라며 "그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현재 저축은행 사태라는 참담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여성규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와 관련, "대법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고심사제나 고법상고부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지나치게 법원 중심의 권의주의 발상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천경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97년 2월 강원도 원주지원장으로 발령받고 가족들과 원주로 이사했지만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성남 분당에 전셋집과 다른 집으로 두 차례 옮겨놓는 등 3회의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며 "준법의식과 연관지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60년 4.19 의거 때 한국일보 지방판에 실린 기사를 찾습니다.**

1960년 4월 20일~4월 26일 사이에 한국일보 광주·전남 지방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발견되자 전국에서 정부에 대한 열기는 국토가 들끓었습니다.

그 때 광주에서도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남도청으로 집결하여 데모를 했습니다.

마침내 전남도청 간부와 각 고등학교 대표들 간의 면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유엔하원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박석남 회장도 당시 광주상고 대표로 도청간부와 면담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박석남회장에 면담내용을 인터뷰한 후 신문에 실었습니다.

4.19 의거때 박석남회장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주간) 02-2244-4447  
(야간) 010-4612-3567

#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1. 전부명령의 위험(확정판결, 어음공증)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다량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5. 자녀가 성인(만20세)에 가까울 경우

# 법인회생

**전문직(의사, 약사, 한의사, 법인사업자) 법인회생 특별상담해드립니다**

(단, 고의적인 채무발생과 재산은닉등은 사기회생 및 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

<h3>금산공인중개사</h3> <p>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li> <li>■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li> <li>■ 3.3㎡당 매매가 - 1,300만원</li> <li>■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li> <li>※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li> </ul> <p><b>장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li> <li>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li> <li>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li> <li>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li> <li>⑤ 18 광로변</li> <li>⑥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빌딩지구</li> </ol> <p>※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p> <p>H.P.011-601-5354</p>	<h3>대인동상임부동산</h3> <p>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p> <p>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p> <p>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p> <p>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FAX)223-1772 ☎011-602-2632 (광주은행 본점 옆, 대인동 소방사건대편)</p>	<h3>주인직접거래</h3> <p>고흥바닷가 신축항동집</p> <p>면적3개 넓은 텃밭 300평</p> <p>조망권최고 계곡물흐름</p> <p>전세 5천만 3천만원</p> <p><b>해수절임공장 임대</b></p> <p>맑은바닷물</p> <p>(김치공장도최적)</p> <p>고흥바닷가 약100평</p> <p>전세 1천만원</p> <p>고흥-광주간 고속도로 공</p> <p>사중 약50분거리임</p> <p><b>고흥 대전리 해수욕장 옆</b></p> <p>매실, 유자밭 3천평</p> <p>당5만원</p> <p>(펜션, 모텔 부지 최적)</p> <p><b>항토주택 짓는법</b></p> <p>무료로 배우실 분</p> <p>문의 ☎010-8200-5662</p>	<h3>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h3> <p><b>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b></p> <p>▶대지 : 263평, 신축총고53평, 사무실 26평</p> <p>건폐율 60% 유통단지</p> <p>▶매매가격 : 6억2천만원</p> <p><b>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b></p> <p>▶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p> <p>▶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p> <p><b>남구 송하동 토지매매</b></p> <p>▶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p> <p>▶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p> <p>▶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p> <p><b>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b></p> <p>▶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p> <p>▶건 물 : 300평, 200평, 200평</p> <p>▶높 이 : 8.9, 10.9m</p> <p>▶호이스트 : 유, 유, 유</p> <p>▶매매가격 : 협의후결정</p> <p>문의 : ☎ 016-644-4265, FAX.523-8558</p>
--	--	--	--